



'이중섭과 서귀포' 이젠 미술관 소장품이 말한다

삼성이 기증 12점 공개 특별전
어제부터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초반 사전 예약 마감 등 관심
'비둘기와 아이들' '연날리기'
앞뒤 그린 양면화 이색 전시
가족·물고기·계 등 키워드
서귀포 시절 이중섭 연구 기대



기증품에 포함된 양면화 '비둘기와 아이들' (왼쪽)과 '연날리기'.

이중섭이 그린 '삶이 보이는 풍경' (1951)이 '삶이 보이는 서귀포 도심 미술관'에 마침내 동지를 틀었다. 이권 회컬렉션 기증 작품으로 꾸민 이중섭 특별전 '70년 만의 서귀포 귀향'이 5일 이중섭미술관에서 막이 올랐다.

이번 특별전은 1층 상설전시실을 활용해 이중섭의 유화, 수채화, 염색화, 은지화 등 기증작 12점(한라일보 8월 25일자 8면 보도)을 외부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서귀포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날 별도의 개막 행사는 치르지 않았으나 특별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1주일 전에 이미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시 첫날 관람 예약이 마감됐다. 휴관일(월요일인 6일) 다음 날인 7일과 8일, 주말인 11일에도 사전 예약이 찬 상태(5일 오후 5시 기준)다. 하루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일일 8차(회당 20명) 총 160명이다.

이중섭미술관은 뜻있는 이들의 기증으로 매년 운영의 전환점을 만들

어왔다. 2002년 11월 이중섭전시관으로 개관해 2종 미술관 등록(2003년 7월), 1종 미술관 등록(2004년 9월)을 앞두고 이중섭 관련 등 수십 점의 작품 기증이 잇따랐다. 현재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299점 중 구입은 40점에 불과하다. 기증품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올해는 삼성가의 기증이 더해지며 이중섭 미술품만 총 60점(구입 36점, 기증 24점)을 소장하게 됐다. 그동안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만 중 하나는 이중섭을 주제로 한 작가미술관임에도 정작 이중섭 작품은 부족하다는 거였다. 미술관에서도 이번 기증을 계기로 '서귀포와 이중섭' 주제 연구 기반을 조금이나마 갖추게 됐다. 미술관은 대표작이 된 약 12호 크기 '삶이 보이는 풍경'만이 아니라 이번까지 합쳐 총 10점의 염색화를 수장하게 되면서 가족, 물고기, 계 등 서귀포 시절의 키워드가 되는 소재를 통해 이중섭 작품 연구

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증작 중에는 양면화도 들어있다. 양면화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 모두에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한다. 기증 작품 수는 12점이거나 실제로는 13점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작품은 1950년대 제작된 것으로써 약 6호 크기의 '비둘기와 아이들' (앞면)과 '연날리기' (뒷면)다. 미술관은 별도의 전시대를 설치해 종이 앞뒤에 각각 그려진 양면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은 앞서 2018년에는 새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 등을 묘사한 이중섭의 양면화('무제')를 구입했다.

미술관 2층 로비와 기획전시실은 특별전에 맞춰 이중섭미술관이 걸어온 길,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증 작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미디어아트도 준비됐다.

특별전은 내년 3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이어진다. 추후 서귀포시는 유

튜브 채널을 활용해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기증은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완료된 관련 용역에선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 인근에 증축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이권회컬렉션을 기증받으며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중섭미술관 신축안은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내용이다. 내년 건축 설계를 추진하고 2023~2024년 공사를 거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했다. 이중섭미술관 신축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서귀포시는 8월 말 콘텐트 확보 등 향후 계획을 보완해 심사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심사 결과는 10월 중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이경은의 '달과 바다'

음영 드리운 검푸른 풍경 속 희망

이경은 작가 첫 개인전
'제주의 빛' 주제로 유화
사물 고유색에 스민 빛들

그는 빈 캔버스만 바라보던 날이 여러 달이라고 했다. 서귀포미술협회 정기전 등 단체전에 간간히 출품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작업에 손을 놓고 있던 탓에 부담감이 컸다.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약 30년 만에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있는 이경은 작가는,

이경은 작가는 오랜 기간 기암미술관에 근무했고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제주현대미술관장을 지내던 등 20년 넘게 공립미술관에 몸담았다. 그는 퇴임 뒤 본격적으로 붓을 잡으며 오래전 스승인 김택화 선생을 모시고 산으로, 바다로 스케치를 다녔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 시절 그는 반짝거리는 나뭇잎과 검푸른 바

위들의 생명력을 봤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 펼쳐는 생애 첫 작품전에 '제주의 빛'이란 이름을 붙였다.

'흐린 날', '문주란', '달과 바다', '칸나와 비닐하우스', '삼나무와 개', '검질'('잡풀'이란 뜻의 제주 방언), '개우지코지', '여름' 등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전시에 나온 20점 가까운 유화 작품은 모두 2021년에 그려졌다. 이 작가의 일상 안에 머물고 있는 풍경들엔 사물의 고유한 색에 강한 제주의 빛이 더해지며 생겨난 음영이 있다.

그들이 있으면 빛이 있는 법이다. 검푸른 화면 속 이 땅에 내리쬐는 햇빛은 다가올 희망을 예고한다. 야생의 '검질'이 더 화려한 꽃을 피워내고, 앞드려 팔을 뻗은 물속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듯 말이다. 작가가 이번 전시에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2019 홍콩'을 내건 배경에도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한 줄기 빛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전시는 이달 9일까지 이어진다. 전선희기자

내달 말 행원리서 클래식기타 콩쿠르

제주 첫 클래식기타 경연
중주·독주 부문 나눠 진행

'해녀 마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전국 규모 기타경연대회가 개최된다. 행원리와 한국기타협회 제주지회가 주최하고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기타협회 후원하는 '제주 에너지공사 행원 클래식기타 콩쿠르'다.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행원리에 들어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CFI 미래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주와 독주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다. 만 13세 이상 중주 부문은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로 구분해 진행한다. 독주 부문은 만 13세 이하 대상 초저부, 초중부, 초고부로 갈라서 경

연이 이뤄진다. 경연에 맞춰 행원리 해녀의 노래 공연, 신재생에너지 투어 등도 예정됐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로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17일까지 연주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sorinoul@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통과자가 참가하는 본선에서는 제주민요 등 제주 소재 지정곡 1곡과 자유곡 1곡을 연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cafe.daum.net/hengwonCG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연장인 CFI 미래관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문의 010-3061-2070. 전선희기자



제주 4·3 시기 김익렬·김달삼 평화협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극 '협상 1948'.

서울 대학로에 제주4·3 다룬 연극

이달 10~19일 '협상 1948'
김익렬·김달삼 협상 실화
'4·3 본질·평화 정의 초점'

서울 대학로 무대에 제주4·3을 다룬 연극 한 편이 올려진다. 대전의 아신아트컴퍼니가 펼치는 '협상 1948'(작, 연출 백훈기)이다.

지난해 초연된 이 작품은 같은 해 제주 놀이패 한라산이 주최하는 제14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달'의 공연으로 초청됐다. 당시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했다.

연극 '협상 1948'은 1948년 4월 28일 이뤄진 제주주둔군 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임 김달삼의 평화협상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운명을 뒤바꿀 테이블 앞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갔을 대화를 재연해 관객들이 그 협상 현장을 지켜보던 제주도민들의 심정으로 관람하도록 만든 창작극이다. 4·3의 본질과 평화의 정의를 초점으로 맞춰 피해자의 기억을 가진 소녀와 가해자의 기억을 가진 청년을 등장시킨다. 김형범, 이준

영, 조우진, 조은진, 이지은이 출연한다.

이희진 프로듀서는 "이 작품을 통해 4·3이 재조명되어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의미있는 공연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을 바란다"고 했다.

공연 일정은 이달 10~19일(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와 6시) 아트원씨어터 2관, 제주도민과 4·3희생자 유족, 한국사 자경중 소지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 예매가 진행 중이다. 문의 1599-921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반적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비영사업 박영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대형 상가매장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영구적 바닥 해결!

월정리 카페

세화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우도농협하나로

중대형 물류센터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동아통운 물류센터

종달리 카페